

사회

전자발찌 배짱 성범죄 속수무책

거주지 내 범죄때 작동 안해... 이동루트·훼손여부만 알아

광주 성폭행 기도 30대 검거... 3명이 33명 관리 허술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광주에서 발생해 성범죄자의 관리와 감시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전자발찌가 작동하지 않는데다 관리인원도 적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 31일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암교 밑 지하보도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김모(32)씨를 감간차상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

다 지난해 9월1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보호관찰소 관할 내 전자감독 대상자 중 동종 범죄를 시도한 첫 범죄자로 기록됐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난지 얼마 안되어 있는 전자발찌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으며,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잠복중인 경찰관이 피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추격해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예방차원에서 거의 매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지만 법이 허용한 일상생활에서의 우발적 범행까지 막아내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털어놨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 판

결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주거지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강제 부착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 이동 등 정상적 생활은 가능해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9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31일 현재 성범죄, 살인, 유괴 등 특정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 내 모두 48명(15명은 감독기간 종료)에 이르고 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남에도 보호관찰인

력부족으로 관리·감시체계가 취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광주, 나주, 장성 등 6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전담 직원은 사무관을 포함해 단 3명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33명을 보호관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광주보호관찰소 한 관계자는 “전담직원은 적고 전자감독 대상자는 많아 이들을 상시적으로 보호관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 시행 3년째인 올해 8월 현재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26명(전국 누적)이다. 지난 2008년 205명에서 2009년 445명, 2010년 403명, 올해 8월 현재 47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연루 광주 기무부대 요원 등 4명 구속

軍, 수사결과 발표

국군기무사 요원의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31일 “해킹에 연루된 기무요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통신자료 분석과 관계 서류 검토, 결재 시스템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상급자와 상급부대 연관성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요원은 광주지역 기무부대 함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함모(35) 군무원에 이어 같은 부대 장모(35) 중사 등 4명이다.

조사본부는 “한 원사가 보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에게 부탁한 것이 다른 인접 동료와 연계돼서 불법 행위를 통한 과도한 수집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무부대의 뒷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김 군무원이 해킹 메일을 발송한 다음사이트의 계정 내용을 삭제토록 신청해 모든 자료가 삭제됐고, 광주 기무부대와 서울 기무부대의 상부보고 자료 및 결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구속된 4명 외의 관련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사본부는 “다만, (지역) 기무부대에서 (상급부대에) 따로 보고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관련자 증거와 진술에 따라 완벽히 수사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군 일각에서는 헌병 수사관들이 기무부대 및 기무부대 요원들을 수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해킹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남뉴스

나원침 (8428) 김종두



무관심한 이웃

독거노인 숨진지 일주일만에 발견

홀로 생활해온 60대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58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한 주택에서 손모(6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주민 서모(여·63)씨가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최초 신고자 서씨는 경찰에서 “집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문은 잠겨 있고, 1주일 전부터 동네에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돼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숨진 손씨는 몇 해전 모친이 사망한 뒤부터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손씨가 노환 등의 이유로 1주일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철창 신세에 앙심 순찰차에 화풀이

“벌금을 내지 않아 철창 신세를 졌던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취해 순찰차에 화풀이를 하다가 또 다시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은행 앞에 세워진 농성파출소 순찰차량을 주먹으로 때려 손상 시켰다는 것.

○“조사결과 술에 취한 김씨는 지난 2006년 업무방해죄로 선고된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로 한 달전 체포되어 유치장에 10일간 감금됐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엉뚱한 순찰차에 화풀이.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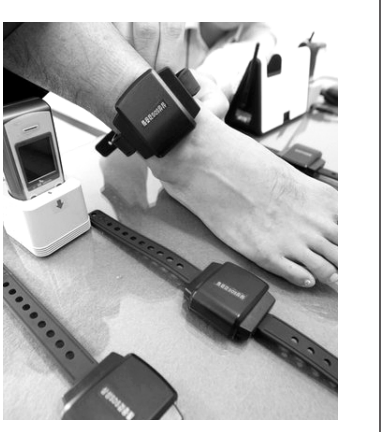
착용자 24시간 감시·추적 해당지역서 이탈편 경보음

■ 전자발찌는

2008년 성범죄 예방을 취지로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살인범과 미성년자 유괴범들에 대해서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게되며 인공위성과 이동통신사 기지국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추적된다. 현재 전자발찌 시스템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아동시설 등 출입해 금지 구역 안에 있거나, 해당주거지에서 벗어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린다.

이렇게 센서가 작동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신호가 가고, 동시에 112신고 센터에 즉시 연락돼 보호관찰소와 지구대 순찰 차량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법무부 분석 결과 최근 3년(2008~2011년)간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0.9%로, 도입 이전 3년(2005~2007년)동안 검거된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인 14.5%의 16분의 1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병록(왼쪽)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1일 인화원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가니’ 피해자·민변, 민사소송 제기

광산구, 인화원에 시설폐쇄 명령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지부장 이상갑·이하 민변)와 함께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민변 광주지부 이상갑 지부장에 따르면 최근 이상갑 지부장, 김정호 사무국장, 조속 변호사 3명 등 모두 5명으로 “인화학교 대책위 민변법률지원단”을 꾸리고 인화학교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민변법률지원단은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 법인, 법인 운영자, 교육청 등 관리감독 기관, 국

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인화학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광주민변이 조사했던 내용 등을 토대로 인화학교 대책위와 함께 접근 방향을 논의 중이다.

특히 가해자들의 공소시효 만료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장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장애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상갑 변호사는 “형사 처벌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 됐지만,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과거사 문제 등은 정의의 원칙을 내세워 소멸시효가 배제되

는 경우가 많다. 그 같은 논리로 접근할 계획이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보통 수년 이상 걸리지만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는 이날 오전 인화원을 방문해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서를 전달했다. 구는 원생 57명 가운데 15명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시설로 옮겼으며 보호자가 없는 나머지 42명도 이전시킬 방침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1일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 통보할 예정이다. 인화학교 학생 21명은 1일부터는 광주교육연수원에서 학습을 계속한다. 광주시도 같은 날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해왔던 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사건 통지를 한 뒤 11일 청문을 진행하고, 14일 허가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보험 사기친 조폭들

광주경찰, 1인 10여개 가입 보험금 가로챌 6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조직폭력배 일제단속에 나선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을 무더기로 가입한 뒤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챌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조직폭력배 조직자금 유입 여부를 수사하면서 신앙 관광·수기동·신서방·국제피제이·무등산 등 5개과의 조직폭력배 규모씨 등 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 폭력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18개 보험사에 1인당 10~16개 보험을 가입한 뒤 상해나 질병 등으로 입원진단서를 발급받아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력배 규모씨 등 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 폭력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18개 보험사에 1인당 10~16개 보험을 가입한 뒤 상해나 질병 등으로 입원진단서를 발급받아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한편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조직폭력배 3명을 추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직운영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입원 이후 서울, 대전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 조폭들은 보험금 지급 서류 발급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해 집에서 짐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조직폭력배 3명을 추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직운영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생활비 마련하려... 40여차례 빈집 털어

여수경찰, 10대 소녀 구속

여수경찰청은 지난 31일 가솔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상 절도)로 김모(15)양을 구속했다.

김양은 지난 10월 중순 오후 여수시 선원동 김모(44)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150여만원 어치를 훔

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가솔한 김양은 절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귀금속 중 일부를 훔쳤으며 장물을 팔아 짬짬 방과 PC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우리구역서 멀치 잡지 마”

여수해경, 전남서 불법조업 경남 어선 적발

여수해경은 지난 31일 전남 조업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경남 사천선적 25t 권 권현명 어선 H호 선단 어로장 함모(44)씨를 입건했다.

함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선적 어선들은 조업할 수 없는 여수시 남면 금오도 풍곡 약 7.8마일 해상

에서 권현명 어구를 이용해 멀치 15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9시 20분께도 사천선적 권현명 어선 D호(선장 이모·51)가 전남 조업구역을 1.5마일 가량 침범, 금오도 해역에서 불법 멀치잡이를 하다 적발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인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가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재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번쩍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형광등용

디오라이트용

삼파장용

에코반사캡

DIY세트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di.com